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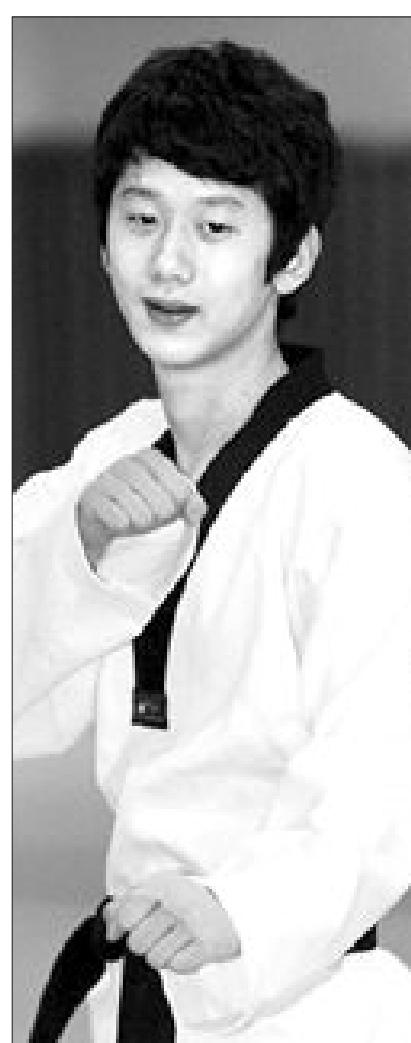
베이징올림픽 D-25 금메달 기대주 ④ 태권도 손태진



新 세계 중 훈련 랭킹 장미란

합계 330kg 들어 中 무상상 기록 11kg 추월

“발차기·스피드로 끝내겠다”

선수자격 시비·부상 등
우여곡절 끝에 태극마크

한국 태권도 기대 주인 남자 68kg급의 손태진(20·삼성에스원·사진)이 2008 베이징올림픽 무대에 오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손태진은 지난해 9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올림픽 세계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대학을 자퇴했다. 지난해 경복체고를 졸업하고 실업팀 삼성에스원에 입단한 손태진이 단국대를 다니다 같은 해 3월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표선발전에 대학 소속으로 출전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난해 7월 열린 올림픽 세계선수권 대표선발전에서 손태진에 대한 선수의 팀에서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운동부와 일반부(실업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 규정에 따른 것이다.

체육회는 결국 올 1월 이사회에서 실업팀 소속 선수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선수등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손태진은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태권도인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때는 정말 태권도를 하기 싫었다”고 당시 마음고생을 떠올렸다.

대표 자격 시비에 휘말린 뒤 출전한 올림픽 세계선수권은 더욱 드라마 같았다. 손태진은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1위를 차지해 한국에 올림픽 출전 티켓을 안겼다. 1회전 우승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나아가던 손태진은 아코모 가르시야(도미니카공화국)와 4회전(16강) 대결 끝에 팔꿈치가 탈구되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 2-4으로 앞선 2라운드에서 상대와 영기며 바닥에 떨어진 뒤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끓었다.

응급조치를 받고 다시 경기에 나선 손

지만 손태진은 주저앉지 않았다. 3라운드 까지 4-4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서든데스로 진행되는 연장전에서 종료 4초 전 회심의 오른발 몸통차기를 성공시키며 로페스를 무릎 깊였다. 이어 준결승에서 멕시코의 이들리오 이슬라스(멕시코)를 2-0으로 따돌렸고, 결승에서도 현란한 발차기로 게슬러 비에라 아브레우(쿠바)마저 4-1로 꺾고 1위에 올랐다. 손태진이 ‘맨체스터의 영웅’으로 우뚝 서는 순간이었다.

태극마크를 달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는 것도 쉽지 않았다. 손태진은 올 3월부터 세 차례 열린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재경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베이징올림픽 대표가 됐다.

한국의 출전 네 체급 중 최종선발전에서 3차전까지 대표 선수를 가리지 못해 재경기까지 치른 것은 남자 68kg이 유일했다. 대학 2학년 나이인 손태진은 올림픽 대표 6명 중 가장 어리다. 국제 경기 경험도 많지 않다. 하지만 금메달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소속팀 김세혁 감독은 “얼굴 공격이 주무기인 손태진은 기술적으로는 보완할 것이 없다. (해비급 최고 스타였던) 김제경이 다시 나왔다 싶을 정도”라고 말한다. 다만 큰 무대 경험 부족은 다소 걸린다.

2005년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1위를 차지한 손태진은 성인으로서 첫 출전한 국제무대인 지난해 5월 베이징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첫 관에 암시로 메즈스(베네수엘라)에게 3-5로 패했다. 하지만 9월 올림픽 세계선수권에서는 부상으로 1위를 차지하며 빠른 적응력을 보여줬다.

손태진은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 독한 마음 먹고 꼭 금메달을 따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선수들을 지도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오전부터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베이징올림픽 매달 시상에 힘을 보탠다.

유남규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때 남자 팀 코치로 복식 금메달(이철승-유승민)을 지휘했고 혁정화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 여자팀 코치로 당시 감독이던 이예리사 태릉선수촌과 복식 은메달(이은실-석은미), 단식 동메달(김경아)을 학자했다. 둘은 2005년 5월 남녀팀 감독으로 승격돼 사퇴하기 전까지 2년7개월간 대표팀을 이끌었다.

유남규, 혁정화는 이날 오후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경기장을 찾았을 것이다.

올림픽 금 청신호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5·고양시청)이 역도 대표팀 훈련에서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13일 대한역도연맹에 따르면 장미란은 지난 11일 오후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하다 인상 140kg, 용상 190kg을 각각 들어 인·용상을 합한 합계에서 330kg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운 자신의 최고기록인 합계 319kg(인상 138kg+ 용상 181kg)은 물론 장미란의 최대 라이벌 무상상(24·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기록(319kg)보다 무려 11kg이나 추월한 것이다.

또 용상에서는 탕궁훙(중국)이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세웠던 종전 기록(182kg)

을 8kg 넘어섰고, 인상에서는 무상상이 보유한 세계기록(139kg)보다 1kg을 각각 더 들어 올렸다.

장미란은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이 합계 기록만 유지한다면 무상상의 출전 여부에 상관 없이 여자 역도 최종왕금(+75kg)에서 한국의 금메달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상은 지난 4월 중국에서 열린 2008 중국 대표팀 선발전에서 합계 328kg(인상 145kg+용상 183kg)으로 비공인 세계기록을 세웠지만 장미란의 이번 기록보다는 2kg 부족하다.

장미란의 이번 기록은 훈련 도중 나와 국제제도연맹(IWF)으로부터 세계기록으로 공인받지 못한다. 하지만 당시 훈련장에는 역도연맹 임직원과 역도 대표 각 실업소속 팀 관계자 40여 명이 눈으로 확인했다.

장영달 배구협회장 내주 사퇴기로

남녀 배구팀의 베이징올림픽 동반 탈락 이후 배구계 일각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장영달 대한배구협회장이 다음주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장 회장은 13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이사회 간담회에서 협회 이사들에게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장 회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8·19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리그 원정대회가 끝난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면서 “이번 사퇴를 배구계 전체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회장은 12일 월드리그 쿠바전 참관을 위해 전주를 찾은 이동호 KOVO 총재와 가진 면담에서 이번 주 중 두 사람이 회동을 갖고 배구협회와 KOVO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기본 틀을 마련한 양측간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양 측 실무진이 협의한 내용 중에는 협회와 KOVO가 공동으로 가칭 ‘배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그동안 국가대표 차출 등을 놓고 협회와 프로구단이 자주 갈등을 빚었던 점을 감안, 프로구단 소속 선수들을 협회에 등록시켜 구단이 선수보호를 명분으로 대표팀 차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테니스 스타 마이클 창 ‘명예의 전당’



1989년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챔피언 마이클 창(36·미국·사진)이 테니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1월 명예의 전당 가입이 확정됐던 창은 13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에 위치한 테니스 명예의 전당 위원회에서 마크 매크로브, 유진 스콧과 함께 입장식을 가졌다 AP통신이 전했다. 창은 1989년 당시 17세 나이로 프랑스오픈을 제패해 최연소 메이저대회 남자단식 우승자로 이름을 날렸으며 1995년 프랑스오픈과 1996년 호주오픈, US오픈 단식 준우승을 차지했다.

중국계 미국인 창은 기자 회견에서 “1989년에 프랑스오픈에 나가지 않았다면 나는 CNN을 통해 전해지는 천안군 사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이라며 “아마 신께서 나에게 우승을 통해 중국인들 얼굴에 미소를 선물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피트 샘프라스, 앤드리 애거시, 짐 쿠리어, 이반 렌 등 내로라하는 선수들과 경쟁을 피할 수 없었던 현역 시절에 대해 “스피드를 최대한 살리려고 애썼다. 민첩함을 앞세워야만 그런 훌륭한 선수들과 경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유남규·현정화 탁구대표팀 코치진 합류

지난해 12월까지 탁구 남녀 대표팀 사령을 맡았던 유남규(40)와 현정화(39)가 2008 베이징올림픽을 코 앞에 두고 대표팀 코치진에 합류했다.

유남규, 혁정화는 13일 오후 5시 대표팀이 전지훈련 중인 경남 김해시 구산동 김해실내체육관에 도착해 서상길, 윤길중 남녀팀

감독과 만나고 선수들과도 7개월여 만에 재회했다.

코치 신분으로 합류는 전영석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의 경기단체 운영에 반발해 사령탑에서 동반 사퇴했던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유남규, 혁정화는 이날 오후 훈련이 없어

선수들을 지도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오전부터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베이징올림픽 매달 시상에 힘을 보탠다.

유남규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때 남자 팀 코치로 복식 금메달(이철승-유승민)을 지휘했고 혁정화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 여자팀 코치로 당시 감독이던 이예리사 태릉선수촌과 복식 은메달(이은실-석은미), 단식 동메달(김경아)을 학자했다. 둘은 2005년 5월 남녀팀 감독으로 승격돼 사퇴하기 전까지 2년7개월간 대표팀을 이끌었다.

유남규, 혁정화는 이날 오후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경기장을 찾았을 것이다.

부동산 매각

地友 부동산컨설팅

봉선동 남구청앞 솔마디운상가 ☎ 062-655-0063
011-9609-9500

◆ 믿음,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동산

◆ 10년간 경·공매 실전경험으로 철저한 수익성분석

◆ 투자자의 마음으로 고객을 상담하겠습니다.

※ 부동산 자체 코는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과 과정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地友와 함께 직접 실무와 경험하는 자세가 재테크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 남녀직원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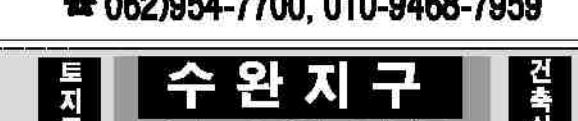


대표 임근철

- 공인중개사
- 부동산 경·공매 분석사
- 부동산 권리 분석사
- 부동산 분양 상담사
- 초당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토지매매

▶ 송지구 83-1 (별의변경가능) 600평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로 675번지 10층

</